

목포에 '조선업도약센터'... 구인난 해소 한몫 기대

목포시·전남도·영암군 컨소시엄 구직 희망자 취업지원 서비스

목포시는 전남도, 영암군과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조선업 도약센터'는 목포역 근처 KT빌딩 2층에 들어선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고용위기 해소와 고용회복 연착륙 지원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확보한 국비 10억원을 활용해 전남도조선업도약센터 운영, 조선업 구직자 발굴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 운영, 조선업 신규입직자 취업정착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목포시, 전남도와 영암군이 컨

소시업을 구성해 진행된다. 지난 6일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4개 기관이 약정식을 했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물량 증가 등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고용위기 당시 대규모 인력유출 및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업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남 조선업도약센터에서 1대 1 맞춤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선업도약센터 취업 지원·연계 서비스에 참여한 후 조선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3개월 근무하면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조선업 노동자 지원), 조선업일자리도약장려금(조선업 사업주 지원) 등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 접수창구 역할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조선



목포시가 전남도, 영암군과 함께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남조선업도약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목포시 제공

업도약센터(061-801-5757)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조선업은 목포지역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에 중요 요소"라

며 "전남조선업도약센터가 좋은 일자리 상생구조를 만들어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10일부터 택시부제 해제 해남군, 심야 시간 승차난 해소

해남군은 오는 10일부터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남지역 전체 택시 187대가 상시 운행함에 따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부제는 국토부령을 근거로 50여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 제도로 해남군 개인택시는 6부제, 읍권 일반택시는 10부제를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해 11월22일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부터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기찬경로당 운동교실 운영 영암군, 25개 경로당서

영암군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찬경로당 건강박세 운동교실을 관내 경로당 25개소를 선정,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운동교실은 3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별로 주 2회 진행된다.

강습 시작 전·후 낙상 위험도 및 일상생활 기능 검사를 진행하고 전문 강사와 함께 생활체조, 심신안정을 위한 요가교실 등을 운영한다.

어르신 걷기 마일리지, 건강백세 식생활 영양교육, 치매선별검사 등 맞춤형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이병영 기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선정 해남군, 구인·구직 연계 지원

해남군은 전남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국도비 3억8000만원 등 총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농촌지역 구인난 해결에 나서게 된다.

올 연말까지 농촌인력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해남 관외지역 구직 인력과 인력이 필요한 관내 지역의 농가·제조업체·소상공인 등 구인처를 현장 발굴해 기반자료를 구축하게 된다.

구축자료를 기반으로 연 5000명 규모 구인처와 구직자를 연계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구직자에 중식비와 간식비,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가입이 지원되며 현장방문 태블릿 PC로 매일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하게 된다. 농가, 기업체, 소상공인 등 구인 참여기업에게도 참여 촉진수당이 지원된다.

한편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남군과 사업운영 기관이 3월 중 14개 읍면을 순회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 관내 농어가 및 사업체에 인력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남군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061-530-5865), 사업운영기관 전남고용노동연구원 해남지사(061-882-7780)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완도군, 전지훈련 최적지 각광

완도군이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 70개 팀, 941명 등 연인원 1만여명이 전지훈련에 참여했다.

완도군이 온화한 기후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축구,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 70개 팀, 941명 등 연인원 1만여명이 전지훈련에 참여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45개소 선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규 마을 45개소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신규 마을은 금당 신흥리, 생일 유촌리, 보길 선창리, 청산 동촌리, 약산 화가리, 고금 상정리, 군외 중리, 금일 신도리 등 45개소이다. 완도군에서는 기존 으뜸마을을 포함해 총 136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부터 마을별 사업비를 200만 원 증액해 3년간 500만원 씩 총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우수 으뜸마을에 대해 200만원의 추가 사업비와 우수 마을 현판을 수여한다.

지난해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용암마을과 신지면 월부마을, 금당면 울포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방파제 주변 테라스 및 야간 조명

설치, 주민 쉼터 마련, 벽화 그리기, 한글 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난해 으뜸마을 우수 시·군으로도 선정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마을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별 고유의 특색을 담아내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

무안군, 방과후 아이 돌봄공백 해소 앞장

남약 돌봄센터 문 열어

맞벌이부부들의 돌봄 공백에 숭통이 트일 전망이다. 무안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은 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해 촘촘한 돌봄 복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초등돌봄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일 삼향읍 예수비전교회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소식을 가졌



다.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수비전교회(목사 주일환)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미만(초등학교

생)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을 제공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놀이, 학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안군은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오룡호반씨앗1차 커뮤니티센터에 지난해 6월 개소해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한국아델리움위너스아파트 작은도서관 내 상반기 개소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맞춤형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보금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주민 발명 특허출원 지원 신안군, 특허권 기술역량 강화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욱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있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낮았고 군차원 지원책 역시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민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례 제정이 특허법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줘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11~12일 황토골 난꽃축제 연다 무안난연합회, 송달회관서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11~12일 무안난연합회 주관으로 송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제11회 무안난연합회 황토골 난꽃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잎을 감상하는 엽예품 전시회에 이어 무안난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색소심, 복색화, 홍화, 주금화 등 화예품이 정성을 들여 가운 250점의 화예품을 중심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개막 하루 전인 10일 출품작 접수 및 심사회가 이뤄지고 11일 난꽃 향연을 볼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장오중 무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반려식물로 주목받는 난산업 저변이 확대돼 새로운 소득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